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섭 및 분별의 선교*

Mission of Consolidation and Discernment in Evangelicalism and Ecumenical Missions

최용성 (Yong Seong Choi)**

강순규 (Soon Gyu Kang)***

최병학 (Byung Hak Cho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Korean church did not properly perceive the fact that Western church histor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evitably led to the ecumenical movement, and it can be said that it still has such a problem. Therefore, in this study,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ecumenical missions can provide a consensual space for evangelical mission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ainstream in the existing Korean church, in some respects, and by fusion with each other, they can secure a trading zone while maintaining their own strengths. We would like to explore whether it is possible to prepare a mission direction for hybridization that can be manifes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and reflect on the historical field of the Korean church, and it is suggested that public theological mediation and bridge-building are required i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I suggested the need for discernment for effective mission while pursuing the unity of the church.

Key words : evangelical, ecumenical, consilience, mission, discernment

* 2022년 2월 11일 접수, 3월 4일 게재확정

**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sity) 윤리교육과 시간강사,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wascys@hanmail.net

***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sity)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isoonstar@daum.net

**** 동아대학교(Dong-A University) 조교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hak-99@hanmail.net

1. 서론

종교개혁 이래 세계교회의 역사는 성장과 함께 분열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했다. 유럽에서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북아메리카에서의 대각성운동의 열매는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만들었지만 그것에 따른 기독교의 확장은 또다른 성찰을 요구하였다. 즉 선교지에서의 초교파적 협력과 통섭(通涉, consilience)적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다. 비록 19세기 중엽 이후 다양한 형태의 상호간 협력과 연합활동들이 구체화 되었지만 19세기만 하더라도 주제는 다원화되지 못했다. 선교지의 상황(context)을 깊이 만지는 차원과 소통 역량도 한계를 보여주었다. 당시에 서구 중심의 선교는 당연한 것이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고, 다만 이방인과 다른 국가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회심·개종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자 목표였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의 선교는 반제국주의·반유럽중심적 ‘복수문화성(multiculturality)’의 선교학 또는 윤리학을 깊이있게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를 기점으로 하여 20세기의 세계선교 대회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선교대회는 19세기 선교와 연합운동을 결산하는 특징을 보였지만, 동시에 20세기 선교 연합운동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었다(A. Ruth & S. C. Niel, 1967: 353-373). 그러나 그 이후 제 3세계로부터 막대한 부의 수탈과 식민주의의 문제, 제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서구 기독교계의 자아성찰, 그리고 독재정권의 폭압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피선교지의 식민지적 현실과 세상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의 각 선교대회는 더욱더 그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선교신학도 상황을 중시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관점은 성경 본문을 특별하게 우선시하는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갈등을 낳았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국제 선교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의 경우 교회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었다(B. Stanley, 2009).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국교회는 당시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구중심의 선교환경에서 피선교지 국가였고,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수주의 교회는 교회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경우 개인의 회심과 성화, 심령부흥과 교회 증가,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힘쓰고, 해외선교에 있어서도 개교회주의적 선교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었다. 한국교회는 대체로 18세기의 경건주의, 복음주의 각성 운동 그리고 선교활동이 개인의 회심과 성화, 그리고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많이 물려받았다. 19세기의

기독교는 이같은 18세기의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아 개교회의 성장을 포함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같은 18-19세기 서양 기독교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발전해왔던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경우 거의 20세기 내내 이런 방식으로 복음전파와 교회성장에 힘썼고, 이것을 해외 선교 활동으로 확장시켜 왔다. 한국의 개신교는 18·19세기의 서구 교회처럼 개인의 회심과 성장, 그리고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선교 초기에 받아들인 19세기 말과 20세기초 미국의 근본주의적 개신교 전통으로 말미암아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의 색깔을 더하면서 선교를 진행하였다. 결국 한국교회는 18·19세기의 서양 교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필연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 선교에 에큐메니칼 선교가 어떤 점에서 통섭적인 공간과 교역지대(trading zone)를 마련할 수 있고, 서로 융합 되면서도 각자의 강점과 성찰을 발전할 수 있는 분별력있는 선교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성을 반추, 성찰함이 필요하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통섭 속에서 공공신학적 매개와 다리놓기가 요청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열과 진영논리를 넘어서 통섭을 추구하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분별력 있는 선교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섭을 위한 회고와 반성적 성찰

토마스 쿤(T.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응용해 보자면, 세계교회는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간에 선교 패러다임에서 갈등을 보여왔다. 전자는 보수 진영인데, 주로 전도를 강조하지만 부분적 사회참여를 인정하는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 후자의 경우 진보 진영으로서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강조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사회참여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구중심의 교회가 주체가 되어 피선교지에 교회를 이식하는 선교의 경향을 보여왔다. 대신에 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았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으로, 곧 정치·경제, 사회·문화 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후자의 경우 복음전도를 강조하기 보다 공동체들의 인간화나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과 같은 사회구조적 개선에 집중하는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J. Stott, 1992: 338).

그런데 이런 후자의 관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50년대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출현 하면서 에큐메니칼 선교를 통해 깊이 확장되었다. 1952년 독일 빌링겐(Willingen)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칼 하르텐슈타인(K. Hartenstein)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빠른 속도로 파급되었다. 그 이후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C. Hoekendijk)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강조한 것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이기에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하였다. 즉 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선교 개념이 전환되었는데, 한편으로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J.C. Hoekejendijk, 1967: 38-39). 결과적으로 탈교회화와 교회의 사회참여 사상이 선교에 강화되었고, 종래의 개종을 강조하는 선교는 다소간 후퇴하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적 입장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후 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데이비드 보쉬(D. J. Bosch)는 이것에 대해 선교신학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이 지난 반세기를 지배했다고 말한다(D.J. Bosch, 1991: 389). 이후 세계의 많은 개신교회들은 물론 그리스 정교회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크게 확장되었다. 최근에 와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 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개념은 로마 가톨릭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영향을 끼쳤다(D.J. Bosch, 1991: 390-392).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현장이며,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전 피조세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교회의 선교는 세상 안에서 실천이 가능하며 복음 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신학적으로 창조와 구속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안에서 통섭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복음전도가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고 종말론적 비전하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포괄하게 되었다(T. Sunderemeier, 2005: 234-247).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구령의 사역뿐 아니라 세상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변혁운동, 평화운동, 생태운동 등의 활동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 생명을 일구시는 분으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이해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선교 대상의 좁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선교 대상은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모든 피조세계로까지 확대되었다. 때문에 에큐메니칼 신학은 전통적인 선교의 관심 대상을 매우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안의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확대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요하네스

후켄다이크는 선교의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를 배제하는 정도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D. Bosch, 1991: 392).

그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은 에큐메니칼 대회와 그 신학적 조류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이제 선교의 개념에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영역이 전 세계 인류의 문제, 인간의 조건을 포함한 것이 되었기에, 선교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종래의 전통적인 선교관을 교회중심적 선교관이라고 비판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의 일부분만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심지어 그는 이 세상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J. C. Hoekendijk, 1994: 10). 이러한 개념의 극단적 확장성은 옹살라 대회(1968)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 대회에서는 비기독교세계의 상황을 간과하는 복음 중심의 전도에 대해 많은 성찰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살림’ 건설과 유색인종의 해방, 사회사업 등 사회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증폭시켰다(J. Stott, 17). 또한 옹살라 대회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 영역을 구속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고 보고, 이 모든 것을 선교로 강조하였다(D. A. McGavran, 1988: 65).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레슬리 뉴비긴(L. Newbigin)과 같은 에큐메니칼 신학자는 옹살라 총회에서의 WCC가 지향하는 길에 이의를 표명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화해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화를 강조하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세속주의 선교신학적 관점들이 교회를 위협한 골목,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갈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B. Stanley, 2018: 208-210). 이런 배경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던 1974년의 로잔대회는 복음주의적 의미의 하나님의 선교를 표방한 최초의 세계적 규모의 복음주의의 대회를 추진하였다. 물론 복음주의의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히 교회를 중시한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세상의 섬김 역시 강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로잔 대회 이후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갈등은 대화로 소통되기도 하고 갈등이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양측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양극화되고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 민감한 반응과 소모적인 논쟁의 양극화로 치닫기도 하였다.

선교의 강조점을 본문(text)과 상황과의 패러다임적 차이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성경의 본문을 중시 여겨서 복음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 마 28:18-20)을 보다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에큐메니칼 진영은 창조명령(Creation Mandate, 창: 1: 26-28)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대명령(Great Commandment, 마 22:37-40)에 대한 폭넓은 상황을 보다 강조하였다.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시대적 상황과 변화하는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상황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본문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는 차원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역사과정 속에서의 컨텍스트에 더욱 민감한 강점을 보여왔다고도 할 수 있다.

초창기 에든버러 대회(1910)의 선교 사역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상당히 무너졌기에, 이런 문제의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요 국가들이 모두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충돌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목도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선교 사역이 종교적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로 폄하되기도 하였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이라는 관점 대두되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회심과 세례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이 비난을 받고, 정의와 개발이 선교 활동의 주요 내용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국주의적 전쟁과 착취와 가난, 정의의 훼손과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인식되고 부각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서의 관심도 복음전도는 도외시된 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읍살라대회(1968)에서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 대신 '인간화'로 대치되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방콕 세계전도 및 선교대회(CWME)의 주제인 '오늘의 구원'과 그 논의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구원의 개념마저 미래적인 개념이 약화되었고, 오늘의 구원과 지금 컨텍스트에서의 구원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74)를 통해 복음주의신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재인식하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이후 로잔 후속대회와 제 2, 3차 로잔대회를 거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통전적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의 방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공고해지게 되었다. 또한 에큐메니칼 진영 역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 문제에 대해 고민을 증폭시키면서 복음전도의 강조점 역시 수용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노력의 과정 가운데서 상황이 성경 본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두 신학진영의 패러다임간 통섭의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다. 로잔 대회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영향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면서 사회적 책임 역시 복음 전도 못지않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임임을 수용하였다. 이런 수용은 후속 로잔 후속대회는 더욱더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현실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는 이런 성찰들이 발전되지 못하고 분리된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의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회들은 민주주의, 정의실현, 인간화, 사회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등을 선교의 주요의제로 삼고 관습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천명하고 복음전도가 교회사명의 최우선 순위임을 확인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이 전도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는 통전적 선교의 개념을 확정했지만 이런 부분

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실천에 적용하지 못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많다고 할 수도 있다. 비록 1989년 마닐라 대회(2차)나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3차)를 지나면서 치열한 연구와 적용이 있었지만 현실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오늘날 로잔내부에서 로잔이 처음 강조했던 ‘전도의 우선순위(priority of evangelism)’를 보다 강조하려고 하고 복음전도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보다 강조하기도 한다. 기독교 선교의 양대 축을 이루는 WCC와 복음주의 진영인 로잔이 2천 년대(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이래) 이후로 상당히 통섭적 소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애써 간과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복음주의권에서는 공공 신학이 강화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런 공공신학은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에 통섭화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게 되었다. 공공신학이란 용어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식 속에서 마틴 마티(M. E. Marty)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에큐메니칼 진영의 과격한 정치신학 및 해방신학으로부터 출현하기도 하였고 복음주의권의 공공신학적 전통에서도 출현하기도 했지만 이런 유형의 모든 신학적 모델은 공통적으로 사사화된 복음보다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사사화된 신앙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복음주의 진영의 몸부림은 1974년 로잔 운동 이후 공공신학으로 더욱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로잔 운동은 후에 복음주의적 공공신학에 의해 더욱 그 성격이 공공신학적 성격을 더해 가지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회심과 개종을 기대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차원에 안일하게 머무르는 경향성도 물론 지속되었다(D. B. Forrester, 2004: 6). 한편 WCC 유형의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은 로잔 운동보다 보다 열정적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 진보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은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순화된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기독교보다는 적극적 방식으로 기독교의 공적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들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두 입장에 대한 섞임과 불명확한 정체성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복음주의 진영의 인습적인 ‘교회 중심적’ 사고와 에큐메니컬 진영의 변하지 않는 진영논리적 ‘형식 논리’는 서로의 소통과 통섭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형식 논리는 종종 복음주의를 인습적으로 열등하게 보는 차원이 많았다. 종종 자신들이 가져온 강고한 전통과 계보를 강조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 성도에 호소하거나 회중의 참여가 있다기 보다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의 협력관계에 치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복음주의나 에큐메니컬 진영이 모두 개혁교회의 산물임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두 바울(Paul),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 같은 중요한 인물의 신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오늘의 시대

에서 실천 방식에 따라 진영을 달리하는 경향성을 가지지만 더 깊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양 진영의 차이는 정서적 거리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으며, '제3지대'에서 적절한 교역지대로 만난다면 전혀 거리감 없이 새로운 소통, 즉 통섭의 공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II.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입장의 통섭과 분별력 가지기

1.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성을 반추하고 성찰하기

한국선교는 초창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전도와 교회개척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였다. 때문에 한국교회의 복음전도는 사회적 신뢰와 서로 긴밀한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만열 교수도 기독교인이 비록 한국인구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고 사회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한다. 즉,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복음전도에 열심이었지만 동시에 교회가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선교를 하였다(이만열, 1996: 158-172). 이것은 복음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은 언제나 함께 가야함을 잘 보여주는 선례이다. 동시에 두 활동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갖는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선례이다. 이러한 선례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박해와 다종교 상황에서 소수자의 종교이었지만 당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경우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의 공적 책임에서 퇴각하는 근본주의적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1920·30년대 강화된 보수주의 신학은 근본주의적 사고 방식에 매이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성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조 질서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독교인의 책임을 강조하지 못했다. 칼빈주의는 세상 정부 공직자의 책임, 기독교인의 직업윤리와 문화 창조의 삶을 강조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칼빈주의 사상은 미국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파 분열, 현실 외면, 극단적 교리주의, 역사의식의 부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영혼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한 경향성은 오로지 영혼만을 구원하는 기독교 선교신학을 지속화하기도 했다.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의 정신과 생활에 일정 부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면서 공공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것도 일정 부분 이런 개인주의적 구원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속죄교리나 칭의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음의 공공성과 공공신학적 성찰을 상실한 때가 많았다. 한국교회의 선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강조되었다. 때문에 예수님처

럼 사는 것이 간과되는 차원이 많았다.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삶,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는 복음의 공공성이 강조되지 않았다. 브라이언 맥클라렌(B. A. McLaren)이 강조한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인류 전체와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 무관심한 차원이 많았다. 때문에 단지 개인 구원을 위해서만 복음이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B.A. McLaren, 2011: 51).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사회 현실과 관계없는 개인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연관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현존질서의 유지를 옹호하는 현상유지의 복음의 아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회체제를 변혁시키는 복음의 차원도 가진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본주의 교회들은 사회선교가 절실하게 요청되던 1970-80년대에 대체로 민주화와 정의가 요청되는 사회적 상황과 쟁점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였다.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1970-80년대 용공이란 오해를 받으면서도 민주화와 노동, 인권과 평화, 경제정의 등의 사회적 쟁점들에 민감하였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복음주의권은 빌리 그래함(B. Graham)식의 종말론적 개인구원 전도대회를 많이 수용하였다. 개인전도 열풍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영감을 사로잡았다. 1960년대부터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은 죄많은 이 세상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구원해 내려고 개인전도에 헌신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들이 198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개인전도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사회적 변화가 가장 강렬했던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의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사회선교에 무관심하였다.

반면에 한국교회의 소수와 진보진영은 교회 밖의 진보운동과 민주화 충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을 하나의 교회로 보려는 에큐메니칼 관심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에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입장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물론 개인전도에 치중한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각성하면서 사회선교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복음주의권도 개인전도나 양육 또는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양육과 해외선교로는 신자들의 신앙성숙과 함께 교회의 공공성 및 사회참여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87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나 교회개혁운동 등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보다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면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원론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공공성과 사회참여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그들은 1980년대 중반의 민주화 투쟁 때부터 '사회'에 더욱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일반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응답하면서 진지한 사회선교적 관심을 드러내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복음주의자들의 세계선교대회가 채택한 로잔언약은 당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로잔선교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존 스토트(J. Stott)·로날더 사이더(R. J. Sider) 등은 선교

의 개념을 확장하여 개인전도와 사회정의의 추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서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복음주의권은 시간이 흘러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러한 정신을 반응하였고 사회선교에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다.

복음주의권 교회들 역시 하나님 나라, 교회의 공공성을 보다 예민하게 고민하였다. 물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주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지만 호켄다이크와 같이 교회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권은 성찰성을 더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점차 통전성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2010년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가 개최되었고, 케이프타운 선언문(2010)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C. J. H. Wright)는 이 선언문에서 창조세계의 보존을 선교로 정의하였다. 창조세계의 보존을 선교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통전적 선교는 복음이 피조세계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선교신학자와 현장 사역자인 선교사들은 그들이 복음주의자이든 혹은 에큐메니컬주의자이든 선교의 이해와 개념을 통전적 선교의 차원에서 통합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속에서 공공신학적 매개와 다리 놓기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전도를 강조하지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왔다. 이런 관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명령인 사도적 헌신과 봉사적 헌신과의 관계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D. J. Bosch, 1993, 225). 사도적 헌신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마 28:18-20)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에 봉사적 헌신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이웃사랑의 계명과 관련지을 수 있다. 물론 선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복음전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선교에는 사회봉사의 차원과 복음전도의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교의 목표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에 초점에 두면서, 18세기에서 19세기 근대선교 시기의 전통적인 선교에서 복음전도가 핵심적인 사역이고 사회봉사는 보다 부차적 사역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전도와 이웃사랑이 모두 동시적 사명이지만, 그 중 선교의 사명에 보다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복음전도가 핵심적인 사명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도 이런 양상은 지속되어졌다. 하지만 19세기말부터 보다 제국주의가 증대하고 전세계적 식민지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점차 봉사적 헌신이 강조되어졌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오히려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양상이 일어났다. 이것에 대하여 보쉬(D. J. Bosch)는 벌코프(H. Berkhof)의 말을 의미있게 인용한다. “... 1950년대에 세계에 대

한 사도적 헌신은 그 후의 세계에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봉사적 헌신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벌코프의 알은 올랐다는 것이다(D. J. Bosch, 1993: 225). 이러한 언급은 에큐메니칼 선교의 성격과 깊게 관련된다. 즉 에큐메니칼 선교는 1910년의 초창기에는 사도적 헌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지만, 점차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고, 1950년 이후로 세계에 대한 이웃 사랑, 세계에 대한 봉사로 그 초점을 바꾸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부정적인 차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양상도 있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오래 선교했지만 복음선포의 열정을 가졌던 레슬리 뉴비긴 역시 이런 맥락을 강조하였다. 그는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L. Newbigin, 2011: 104). 대안적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이자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는 공적인 삶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적인 증언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요구하였다(L. Newbigin, 1989, 227). 이런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빌리 그래함식의 개인구원 전도를 모방한 결신중심의 집회 전도와 노방 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산업화·민주화 시대에 개교회주의, 가족, 개인 중심의 사적 신앙이 강화되었다. 심지어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점점 국내 전도와 교회성장의 어려움에 집착하면서 더욱 개교회주의와 교회 성장에 몰입하기도 하였다.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민주화, 평화, 여성, 양극화 해소, 환경 등의 공적 공론장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인습적 사고와 신앙의 사사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국 개신교의 교세 확장은 민주화 이전의 성장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영적, 사회적 차원을 모두를 포괄하는 이웃사랑과 공동선을 일구는 노력이 미흡하였는데, 이런 부분의 극복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이 주창한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구도자 교회에서 강조하는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의 지역 공동체라는 콘텍스트를 고려하면서 이웃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하고 거기에 동참하며 증언공동체가 되는데, 헌신한다는 점에서 선교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 J. H., Wright)가 강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삶의 실제적 가시성이 없으면 선교적 행위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2010: 478).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이웃사랑과 함께하는 성육신적 선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통전적 선교는 고난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면서, 사회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공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로잔 운동이 기여한 공헌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웃사랑과 함께 수용하면서 복음주의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물론 로잔 운동은 그 이후로 창조명령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포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

적 영역에 지체된 선교를 공적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공공신학적 전망을 열어주었다.

존 스토트와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바른 선교적 해석학은 하나님의 선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차원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J. Stott & C. J. H. Wright, 2018: 46). 이런 차원에서 로잔 운동의 선교학적 기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은 물론 환경문제 등 사회 전반의 컨텍스트를 수용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함을 역설한 레슬리 뉴비긴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고, 존 스토트 이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많이 발전시킨 것인데, 일찍이 레슬리 뉴비긴 역시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새로운 사회적 실재를 형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는 그 자신이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되는 것이다”(L. Newbigin, 2008: 96).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뱅(J. Calvin) 역시 신앙과 선교를 사적 영역으로 퇴각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의도적으로 공적 영역에 관한 신학적 논의와 그 선교적 실천에 적극성을 보였다. 칼뱅이 제네바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종교 개혁은 개혁신앙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적 차원으로 확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복음의 공공적 차원을 잘 드러낸 것이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도 칼뱅의 전통을 이은 칼뱅주의자들은 공적 영역의 차원을 꾸준히 중시해왔다. 19세기에 이르러 대표적인 칼뱅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역시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인간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구원의 적용범위를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렇게 구원의 통진적 변화를 강조한 것은 단지 교회 안이 아니라 인간 삶의 일상적 영역까지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A. Kuyper, 1983: 95-97). 이러한 관점은 공공신학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신학 사상이므로 그 이후에 스텐리 하우어워스(S. Hauerwas)의 내향적 공공신학과 맥스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의 외향적 공공신학을 서로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우어워스의 내향적 사회 참여는 상대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솔직히 교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스택하우스의 관점과는 차별성을 가진다(S. Hauerwas, 2010: 10-25).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역할을 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스택하우스의 관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점은 서로 통섭하면서 교역지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공공신학은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공공신학과는 약간 결을 달리한다.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선교신학과 연관되면서 한국의 민중신학과 더불어 교회가 역사 변혁, 정치의 민주화, 경제적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인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전위부대가 될 것을 요구하는 공공신학이다. 예컨대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정치신학은 에큐메니칼적 선교적 교회론과 친화성을 가지며, 선교적 교회의 방향을 교회 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 역사에 관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

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런 몰트만식의 공공신학 역시 모두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띤 공적 신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몰트만식의 공공신학이나 해방신학적 공공신학은 사회의 공적인 일에 관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공복리나 정의에 대해 보다 방점을 두는 신학이다(U. Moltmann, 2007: 10). 몰트만의 공공신학은 나치 정권에 반대했던 고백교회식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교회의 신학이다. 때문에 절제된 공공신학이기 보다는 전후 독일의 상황 속에서 투쟁성과 정치적 참여를 보다 강조하는 정치신학적 성격을 가지며, 해방신학 역시 이런 경향성을 강하게 표출한다(S. Kim, 2011, 23). 이런 면에서 스코틀랜드의 공공신학자 던컨 포레스터(D. B. Forrester)는 공공신학이 정치신학과 해방신학 등으로부터의 영향도 있지만(D. B. Forrester, 2004: 5-9), 몰트만식의 공공신학보다는 보다 아브라함 카이퍼식의 관점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맥스 스택하우스와 같은 공공신학자의 관점은 몰트만식의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보다는 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더욱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스택하우스는 카이퍼 연구소 소장으로서 카이퍼의 '영적 구권론'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시킨 신학자이다. 그 역시 복음의 영역을 교회의 울타리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는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스택하우스는 교회의 교회됨 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공공성과 복음의 사회적 본질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교회 외적인 차원의 공공적 책임성과 공동선을 강조하는 외향적·원심적 공공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S. Kim, 2011: 77). 이는 상대적으로 교회됨의 공공신학을 제시한 스텐리 하우어워스의 주장과는 대조를 이룬다. 하우어워스의 공공신학은 교회 내부를 향한 호소가 강하다. 즉 기독교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세상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덕윤리학적 공동체, 덕의 학교이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S. Hauerwas, 2010: 11), 마틴마티가 말한 공적 교회의 본질적 사회 참여를 제시한다. 이것은 교회 중심적 공공신학이라고 불릴 수 있다. 또는 구심적 공공신학으로도 불릴 수 있다(S. Kim, 2011: 78). 스텐리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공공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구심적 공공신학을 매개하면서 원심적 공공신학으로 발전해 가는 차원이 있다. 이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스텐리 하우어워스나 스택하우스 그리고 몰트만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면서 추구되는 공공신학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공공신학이 공공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참여하느냐는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수적인 공공신학은 정책 수립 등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S. Kim, 2011: 23). 즉,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투쟁보다는 대안적 정책의 제안과 정책과정적

대안을 심도깊게 모색 및 소통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정치적 질서도 공역 영역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은 보다 직접적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차원이 강하다. 물론 둘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택하우스식 공공신학이 신학과 정치를 너무 강하게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과 결합하는 방식에서 절제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 그리고 공공신학이 모두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종교의 사사화를 거부하면서 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도 사회적 약자의 억압이나 사회구조의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는 공공신학적 차원과 함께 선교적 차원을 가지기에 신학은 사회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관점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Palmer, 2012: 25). 어쨌든 로잔 운동과 공공신학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했으며, 케리그마 역시 교회 속의 자폐적 독백에 불과한 상황이 됨을 심각하게 고려한 입장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의 몸부림을 잘 반영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신자의 구원과 교회의 내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교회 밖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던 기독교가 공공영역에서 기독교적 책임을 자각하고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공공신학적 참여는 선교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복음주의 진영의 로잔언약과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이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서로 소통,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비록 에큐메니컬 진영이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과격함이 있고, 비교적 절제된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공공신학은 다소 소극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섭과 교역지대를 확대해 가야 한다. 갈뱅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 사상을 확대하여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 주권론 등에 신학적 기반을 두면서도 소통과 통섭을 확대해 감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으로 나아감으로써, 선교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3. 분열과 진영논리를 넘어서 통섭을 추구하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선교의 현장에서 교회의 분열은 상호 협력을 힘들게 한다. 더 나아가 화해의 복음인 진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린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한다. 결국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실 한국교회는 20세기를 통틀어 교회 안에서 분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내부적 분열과 외부적 사회와의 불통 속에서 교회성장만을 추구하다가 계도화와 자기애적 자폐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간 소통과 세상과의 소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개교회 중심주의적 성장은 지나친 경쟁관계로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것은 선교지에도 연결되어 교단와 선교계의 분열과 과다경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켜보면 복음주의와 같은 보수신앙 교단이 다소간 교회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그룹에 비해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협력의 사역에서도 한계를 많이 노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보수교단과 에큐메니칼 교단 모두 선교지에서 자기 교파성장과 확장을 몰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을 만들기도 하였다. 선교 단체간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고 갈등과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선교는 선교현장에서도 연합과 네트워크가 되지 않은 비효율적 선교를 많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복 투자와 과다 경쟁의 선교도 많았다. 이런 선교는 보편적 차원에서 공동 책임의식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웠고, 민족과 인종 그리고 언어의 탈경계화를 통해 연합할 수 있는 응집력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런 측면에서 ‘에큐메니칼’ 대 ‘에반젤리칼’이라는 잘못된 도식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큐메니칼’의 상대어는 ‘에반젤리칼’이 아니어야 한다. ‘에큐메니칼’의 상대어는 ‘섹테리안’(sectarian), 즉 ‘분파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W. Ariarajah, 2001). 분파주의란 자신의 특정한 신앙체험을 마치 보편적이고 유일하며 최고의 것인 양 주장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한다. 분파주의는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대신 복음을 ‘사유화’하는 문제점을 증폭시킨다. 이에 반해 에큐메니칼이란 교파적 ‘신앙고백’의 차원을 인정하고 세계적 지평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이루어가려는 정신, 몸 가운데서 분쟁을 없애고, 여러 지체가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정신(고전 12:25)을 강조한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성장과 실현을 넘어서는 자기초월의 신앙적 결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에큐메니칼’이 오히려 진정한 ‘에반젤리칼’이라고 할 수 있다. 에큐메니칼을 에반젤리칼에 반대되는 말로 오해되는 이분법적 도식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교신학,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신학적 경향에서 이 양자의 신학이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해 오던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서로 연합하면서 협력사역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회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 개개인이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총체적 선교를 강조했던 올란도 코스타스(O. Costas)도 지속적인 증거행위로서의 연합과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다(O. Costas, 1979: 75). 결국 총체적·통전적 선교를 포괄적

으로 역동적으로 서로 연합·융합하면서 추구하되, 이런 부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 복음전도와 교회성장,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려는 노력을 다시 꼼꼼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체적 선교의 실제적 수행은 한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기에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필요함을 깨닫고, 각 개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하되, 교회들 간의 지속적인 선교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교를 위한 분별력

통전적 선교신학은 선교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즉 ‘복음화’와 ‘인간화’, ‘개인구원’과 ‘사회 구원’ 그리고 ‘인간구원’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 등을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글로컬(global)한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지역성 또는 로컬에서는 복음화의 과제 하나만 해도 결코 작은 과제가 아닐 수 있다. 특별히 핍박이나 억압을 받는 특별한 로컬적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교회들은 복음화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많다. 사회 전체에 정의와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회구원의 문제나, 모든 피조물의 구원, 즉 환경문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주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과 힘과 자원을 가진 교회가 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교회의 핵심 사역이 약화될 수도 있다. 스텐리 하우어워스가 강조하는 교회의 교회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복음전도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의 문제 해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음전도를 할 에너지가 약화되고 교회의 교회됨 자체 역시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 문제 해결은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 역시 힘을 쓰지만, 복음전도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인데,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유일한 기구인 교회가 전도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자연히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히 복음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선교의 열의까지 약화될 수 있는데, 광범위한 선교의 포괄성 제시는 그로 인한 선교의 효율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선교의 과제로 삼지만, 역량과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일을 선교의 사역으로 삼으면, 선교의 효율성이 많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한 사역인 복음전도와 교회의 개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별히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공공신학적 적용과 사회, 정치적 대안 제시 등도 용이하지 않기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사역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스텐리 닐(S. Neil)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선교 개념을 우려하면서 “모든 게 선교라면 아무 것도 선교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S.

Neil, 1959: 81). 이런 점에서 선교자원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와 핵심 목표를 거부하는 통전적 선교신학이 선교를 매우 비효율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복음전도 패러다임’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이 너무 광범위한 선교적 목표를 제시한다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두 패러다임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하나의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 캔트 헌터 (K. Hunter)는 “교회는 교회가 진짜 잘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 성장한다”고 하였다(P. L. Burger, 2002: 20-23).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 부족하고 분별력을 잃는다면 선교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약 교회가 다양한 일들에 몰입하고 균형감을 잃는 교회가 된다면 통전적 선교신학은 오히려 한계를 줄 수도 있다. 즉 교회가 꼭 감당해야만 하는 전도를 교회도 할 수 있는 사회참여 문제와 동일시함으로써 결국 교회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별력있게 선교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복음주의권의 선교전략과 에큐메니칼권의 선교전략적 패러다임을 모두 살펴보면서 통섭적 선교전략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이런 통섭적 선교전략의 구현에는 사회참여와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총체적, 통전적 선교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권의 패러다임의 소통 가능성 및 통섭 가능성이 점점 보여지는 시대에 이런 통섭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또한 진영논리 가운데 분열과 적대화를 그만두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만약 사역이 초점을 잃고 효과성을 상실한다면 복음전도와 개교회 성장에 집중하는 분별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 자체를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특정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성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다. 그러므로 각각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 두 입장 모두 상대방의 강점을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되 통섭적 지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전도와 교회성장, 교회의 교회됨을 추구해가야 한다. 그러므로 21세기 복음주의 선교나 에큐메니칼 선교는 총체적 선교를 추구하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사역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란 영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육적·사회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

는 선교이다. 그러나 21세기 복음주의교회가 총체적 선교를 실천하되 ‘복음전도의 우선순위’가 총체적 선교 때문에 약화되거나, 인간의 다양한 필요들을 대처하려다가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다면 차별력을 가진 효율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에큐메니칼 선교도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되 영혼 구원의 궁극성은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교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임을 명심하면서 총체적·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되, 선교를 차별력있게 효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 문헌 >

- 김균진 역. (2007).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Moltmann, U. (197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Kim, G. J. (2007). *Der gekreuzigte Gott—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Seoul: Korea Theological Institute. Trans. Moltmann, U. (1972). *Der gekreuzigte Gott—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 김덕영·송재룡 역. (2002).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정치**, Burger, P. L. (199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D.Y. & Song, J. Y. (2002). *Is it secularization? Desecularization?: The Rise of Religion and Politics*. Seoul: Korean Christian Book Society. Trans. Burger, P.L.(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Washington, D.C./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김명희 역. (2018). **선교란 무엇인가?**. Stott, J. & Wright, C. J. H. (2015). 서울: IVP.
- [Kim, M. H. (2018). *What is Missionary Work?*. Seoul: IVP. Trans. Stott, J. & Wright, C. J. H. (2008).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US: Updated, Expanded ed. edition (5 Nov.), Inter-Varsity Press.]
- 김기현 역. (2008).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Newbigin, L. (1991). 서울: SFC.
- [Kim, K. H. (2008). *Gospel, speaking the public truth*. Seoul: SFC. Trans. Newbigin, L. (1991).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Newbigi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김찬호 역. (2012). **비통한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Palmer, P. J. (2011). 경기: 글항아리.
- [Kim, C. H. (2012).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gyeonggi: Writing Jar. Trans. Palmer, P. J.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Paperback/ Jossey-Bass.]
- 문시영 역. (2010). **교회됨**, Hauerwas, S. (1981). 서울: 북코리아.
- [Mun, S. Y. (2010).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Seoul: Bookkorea. Trans. Hauerwas, S. (1981).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Seoul: Bookkorea. Notre Dame/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이계준 역. (2000). **흘어지는 교회**, Hoekendijk, J. C. (199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Lee, G. J. (2000). *The Church Scattered*. Seoul: Korean Christian Book Society. Trans. Hoekendijk, J.C. (1967). *The Church Inside Out*, London: SCM.]
- 이만열 (1996),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역사적 고찰,” 이원규 편저,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도서출판 나단.
- [Lee, M. Y. (1996). *Korean Christian Social Movement: A Historical Study*. edited by Won-Kyu Lee, Korean Church and Society. Seoul: Nathan Book Publishing House.]
- 전재욱 역. (1993). **세계를 향한 증거**, Bosch, D. J. (1980). 서울: 두란노.
- [Jeon, J. O. (1993). *Proof to the world speaking the public truth*. Seoul: Durano. Trans. Bosch, D.J. (1980). *Witness to the World*.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 정성목 역. (2011). **기독교를 생각한다**, McLaren, B. A. (2004). 서울: 청림출판.
- [Jeong, S. M. (2011). *Think of Christianity*. Seoul: Cheonglim Publishing. Trans. McLaren, B. A. (2004). *Generous Orthodoxy*, Paperback/Zondervan.]
- 한화룡 역. (2010). **하나님의 선교**, Wright, C. J. H. (2010). 서울: IVP.
- [Jeong, O. B & Han, H. R. (2010). *The Mission of God*. Seoul: IVP. Trans. Wright. C. J. H. (2006). *The Mission of God*. Paperback/ IVP Academic.]
- An, S. O. (2013). “The Target of Mission in Ecumenical Mission Theology: A Critiqu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0(3).
- Ariarajah, W. (2001). “Some Basic Theological Assumptions of the Ecumenical Movement,” in *Our Pilgrimage in Hope: Proceedings of the First Three Seminars of the Asian Movement for Christian Unity, CCA and FABC*.
- Bosch, D. J. (1991).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 Costas, O. (1979). *The Integrity of Mission*, San Francisco; Harper & Low.
- Forrester, D. B. (2004). “The Scope of Public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2).
- Kim, S. (2011).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Press, 2011.
- Küng, H. and Tracy, D.(Ed.) (1989).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New York: Crossroad.
- Kuyper, A. (1983).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McGavran, D. A. (1998), “The Current Conciliar Theology of Mission,” In Donald A. McGavran and Arthur F. Glasser,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Neil, S. (1959). *Creative Tension*, London: Edinburgh House.
- Newbigin, L.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London: SPCK.

- Ruth, A. & Niel, S. C. (1967). ed.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London: S. P. C. K.
- Stanley, B. (2009).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Grand Rapids, Michigan and Cambridge, U. 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Stott, J. (1975),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Stott, J. (1992),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Sunderemeier, T. (2005). *Mission-Geschenk der Freiheit*, Frankfurt: Lembeck.
- Volf, M. (2011).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 Press.
- Wright, N.T. (2020). Christianity Offers No Answers About the Coronavirus. It's Not Supposed To. *Time*, 29. <https://time.com/5808495/coronavirus-christianity>.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섭 및 분별의 선교

Mission of Consolidation and Discernment in Evangelicalism and Ecumenical Missions

최용성 (부산대학교)

강순규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최병학 (동아대학교/교신저자)

국문초록

한국교회는 18-19세기의 서양 교회가 필연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 선교에 에큐메니칼 선교가 어떤 점에서 통섭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서로 융합되면서 교역지대를 확보하면서도 각자의 강점의 발현할 수 있는 혼종화의 선교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성을 반추, 성찰함이 필요하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속에서 공공신학적 매개와 다리놓기가 요청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열과 진영논리를 넘어서 혼종성과 통섭을 추구하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분별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통섭, 선교, 분별